# Daniel Baker

다니엘 베이커



EMERGENCE

Emergence VIII · detail / 부분

Park and Baker Studio

# Where does the body end?

## 몸은 어디까지인가

I look for the point where a body becomes recognizable without breaking away from the paint around it. I want that uncertainty to remain: looking at the body changes the surrounding space, and looking at the space changes the body.

저는 몸이 주변의 물감과 이어진 채로 알아볼 수 있는 형태가 되는 지점을 찾습니다. 윤곽은 잠시 또렷해졌다가 다시 사라지기도 합니다. 몸을 보다가 주변을 새롭게 보고, 주변을 보다가 몸을 다르게 느끼는 그 불확실함을 남겨 두고 싶습니다.



Emergence XXI

2026 / 97 × 130.3 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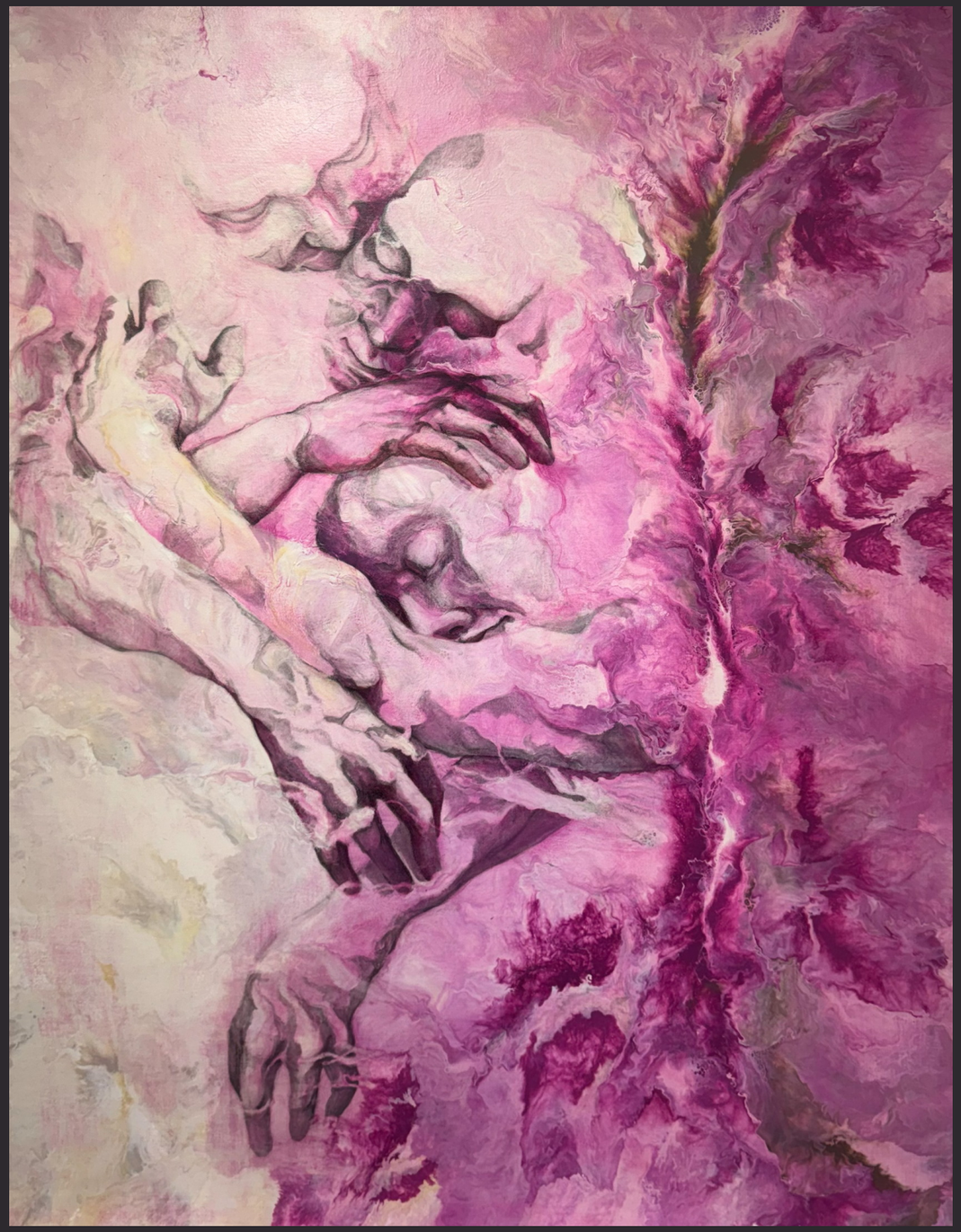
Mixed media on canvas / 캔버스에 혼합매체

# Enough form to be felt.

## 느껴질 만큼의 형태

In Emergence VIII, faces and hands come into focus while the pink paint keeps moving through them. A figure needs enough form to be felt, but I want the first movement of the paint to remain active within i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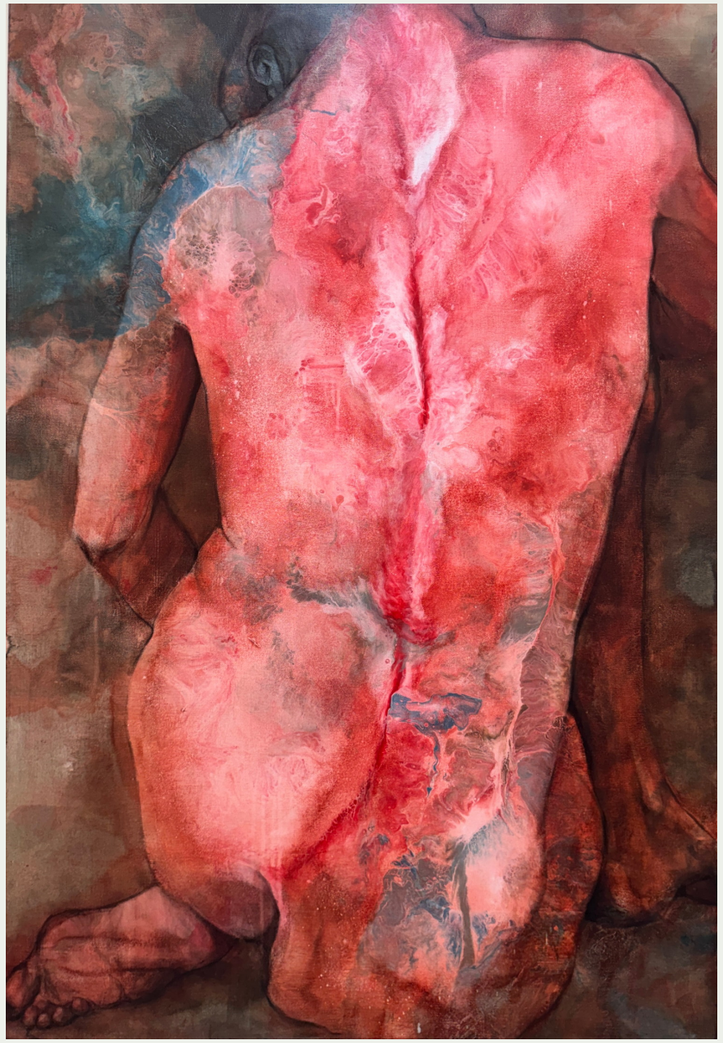
Emergence VIII에서는 분홍빛 물감의 흐름이 이어지는 가운데 얼굴과 손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인물이 느껴질 만큼의 형태는 필요하지만, 물감이 처음 만들어 낸 움직임 또한 그 안에 살아 있기를 바랍니다.



Emergence VIII

2025 / 116.8 × 91 cm

Mixed media on canvas / 캔버스에 혼합매체



# A body in the paint.

## 물감 속의 신체

In XIV, the movement of the paint crosses the curve of a back. In X, hands and folded forms gather around an opening. The body takes shape, but the paint keeps its own movement.

XIV에서는 물감의 흐름이 등의 곡선을 가로지릅니다. X에서는 손과 접힌 듯한 형태들이 열린 공간을 둘러쌉니다. 몸의 형태가 드러나도 물감은 고유한 움직임을 이어 갑니다.



Emergence XIV

2026 / 116.8 × 80.3 cm

Mixed media on canvas / 캔버스에 혼합매체

Emergence X

2025 / 116.8 × 91 cm

Mixed media on canvas / 캔버스에 혼합매체

# Artist’s note

작가 노트



Daniel Baker in the studio / 다니엘 베이커의 작업실

Photograph: Irina / 사진: Irina

**People visiting the studio often ask how I found the figures in my paintings. I begin with abstract color and movement, before settling on a figure. I follow the curves and rhythms that suggest a body, and I want you to share in that discovery.**

A sweep of color may suggest a shoulder. As I give it weight and form through light and shadow, I watch how it changes the movement around it. An edge that is too sharply defined can make the figure seem separate from the surrounding color. I make some parts clearer and let others merge into the painted surface.

What I know about the body, how I feel about the painting and what I do with the paint keep affecting one another. I call this ongoing relationship between thinking, feeling and doing Inner Ecology.

How a figure takes shape →

**작업실에 오신 분들은 종종 그림 속 인물을 어떻게 찾아냈는지 묻습니다. 저는 인물의 형태를 미리 정해 놓기보다, 추상적인 색과 움직임에서 시작합니다. 몸을 떠올리게 하는 곡선과 리듬을 따라가며 인물을 찾아가고, 보는 분들도 그 발견을 함께하길 바랍니다.**

색의 흐름에서 어깨를 떠올릴 때가 있습니다. 명암으로 무게감과 입체감을 더하면서, 주변의 움직임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봅니다. 윤곽을 너무 또렷하게 표현하면 인물이 주변의 색에서 떨어져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은 더 분명히 드러내고, 다른 부분은 주변의 색 속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합니다.

몸에 대한 이해와 그림을 보며 느끼는 감정, 물감을 다루는 행동은 계속 서로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저는 생각과 감정, 행동이 이처럼 맞물려 변화하는 관계를 ‘Inner Ecology’라고 부릅니다.

그림 속 인물은 어떻게 생겨날까요 →



## Emergence VI

2025 / 80.3 × 100 cm

Mixed media on canvas / 캔버스에 혼합매체

Before I draw a figure, I look for direction and weight. A turn, a reach or a fold can already be present in the movement of the paint.

인물을 그리기 전에 방향과 무게를 살핍니다. 몸을 틀거나 팔을 뻗거나 몸을 접는 움직임이 물감의 흐름 안에 이미 들어 있기도 합니다.

# An image can begin as a movement.

움직임에서 시작되는 이미지



## Emergence VII

2025 / 80.3 × 100 cm

Mixed media on canvas / 캔버스에 혼합매체



Photograph: Irina / 사진: Irina

# In the studio.

## 작업실에서

It took me a long time to make painting the center of my life. Here, I can give the work time. I can return to a painting, notice something I missed and follow a possibility I hadn’t seen before.

그림을 삶의 중심에 두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 작업실에서는 그림에 충분한 시간을 들일 수 있습니다. 다시 바라보며 미처 보지 못했던 것을 발견하고, 이전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방향으로 작업을 이어 갈 수도 있습니다.

# What changes as I paint.

그리는 동안 달라지는 것

A small change in the angle of a head or the position of a hand can change how a figure feels to me. That feeling becomes part of my next decision. I may make one part clearer while letting another remain less defined.

고개가 기울어진 각도나 손의 위치가 조금만 달라져도 인물에게서 받는 느낌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느낌은 다음 선택에 영향을 줍니다. 어떤 부분은 더 분명하게 표현하고, 다른 부분은 덜 또렷하게 남겨 두기도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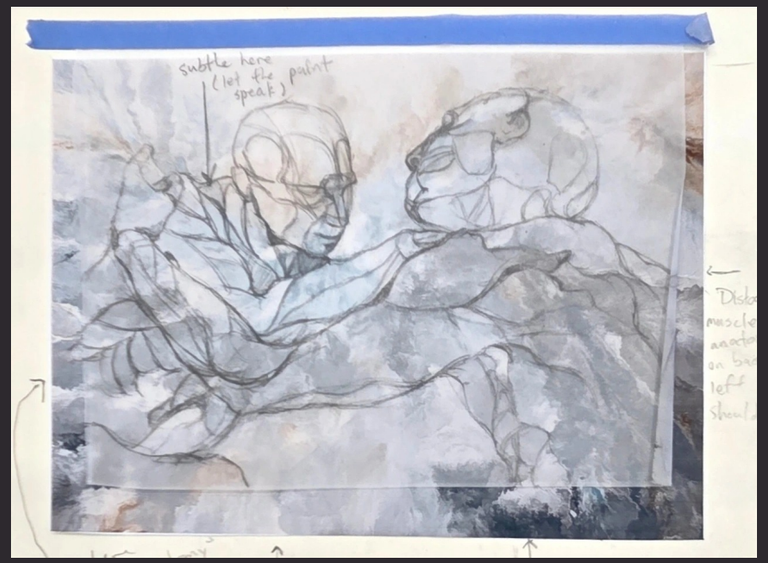
Photograph: Irina / 사진: Irina

# A figure takes shape.

## 인물이 모습을 드러내다

Emergence XXVIII / 2026 / 97 × 130 cm








## 01 / Abstraction

추상

I begin with color and movement. The blue-grey currents and warm passages establish a rhythm before the figures emerge.

색과 움직임에서 시작합니다. 인물이 모습을 드러내기 전부터 푸른 회색의 흐름과 따뜻한 색의 흔적이 화면의 리듬을 이룹니다.

## 02 / Figure study

인물 구상

In the sketchbook, I explore how two figures might grow out of these currents. Their position and gesture remain open as I follow the movement of the paint.

스케치북에서는 두 인물이 이 흐름 속에서 어떻게 드러날 수 있을지 탐색합니다. 물감의 움직임을 따라가며 인물의 위치와 몸짓을 열어 둡니다.

## 03 / Finished work

완성작

In the finished painting, the figures become more distinct while remaining connected to the original movement. Some edges hold their shape; others dissolve into the surrounding paint.

완성작에서는 두 인물이 더욱 분명해지면서도 처음의 흐름과 이어집니다. 어떤 윤곽은 형태를 유지하고, 다른 윤곽은 주변의 물감 속으로 스며듭니다.

# Seeing.



Emergence XXVI A

# Speaking.



Emergence XXVI B

# Hearing.



Emergence XXVI C

2026 / Each 60.6 × 45.5 cm / 각 60.6 × 45.5 cm · Mixed media on canvas / 캔버스에 혼합매체

What I see and hear does not stay outside me. It becomes part of the way I speak to myself, and part of what I say to others. In these three paintings, I am thinking about that exchange. What I notice, what I say and what I am able to hear do not always agree. I want the figures to hold that tension without resolving it for the viewer.

제가 보고 듣는 것은 제 바깥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스스로에게 건네는 말에도, 다른 사람에게 하는 말에도 스며듭니다. 이 세 그림에서는 그 주고받음을 생각했습니다. 제가 알아차리는 것, 말하는 것, 받아들일 수 있는 이야기가 언제나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인물들이 그 긴장을 품되, 관람자를 위해 답을 정해 놓지는 않기를 바랐습니다.



Work in progress / 제작 중

## Emergence XXIV

2026 / 162.2 × 130.3 cm

Mixed media on canvas / 캔버스에 혼합매체



# Inner Ecology

내면의 생태학

## What I feel changes how I paint. Painting changes what I feel.

제 감정은 그림을 그리는 방식에 영향을 줍니다.
그림을 그리는 일은 다시 제 감정을 바꿉니다.

I use the word ecology because what I think, feel and do keep affecting one another. What I know about the body helps me give a gesture form. Seeing it develop can change how I feel and what I decide to do next. In Emergence XXIV, the blue-grey movement runs through the chest while the body still has weight and form. I want you to feel that weight and still be able to follow the movement of the paint.

제가 '생태학'이라는 말을 쓰는 이유는 생각과 감정, 행동이 계속 서로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입니다. 몸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인물의 몸짓을 표현합니다. 그 모습이 드러나는 것을 보며 느끼는 감정이 달라지고, 다음 선택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Emergence XXIV》에서는 몸의 무게감과 입체감이 느껴지면서도, 푸른 회색의 흐름이 가슴을 지나 이어집니다. 저는 보는 분들이 몸의 무게를 느끼면서도 물감의 움직임을 계속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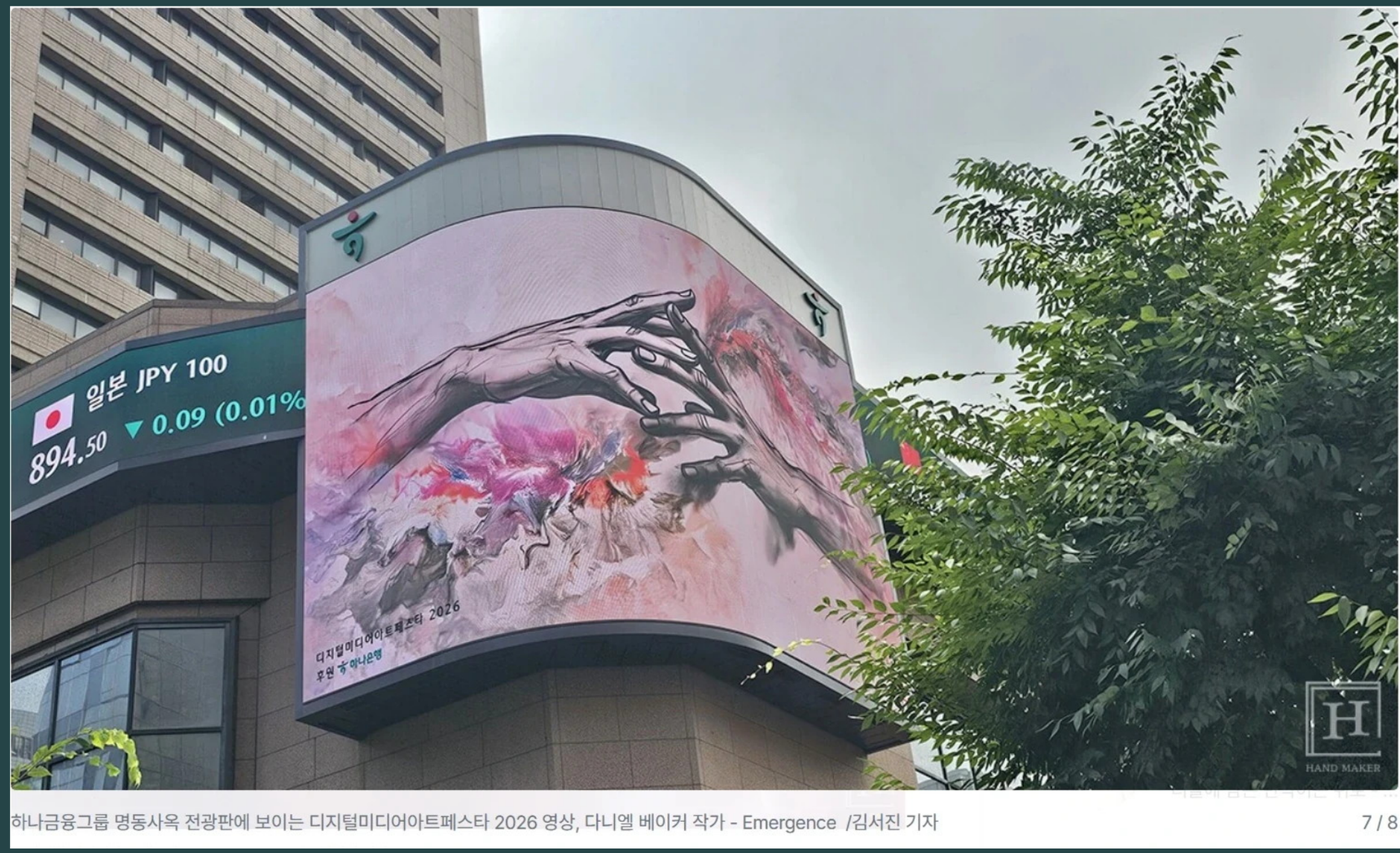
# Beyond the canvas.

캔버스 너머로

## Digital Media Art Festa

디지털미디어아트페스타

Myeongdong, Seoul
서울 명동 · 2026




Hana Financial Group LED façade / 하나금융그룹 LED 파사드

Photograph / 사진: 김서진 · 핸드메이커

For Digital Media Art Festa 2026, organized by Hana Bank, Emergence moved from canvas to the LED façade of Hana Financial Group in Myeongdong, Seoul. Developed from Baker’s paintings, the moving-image work unfolds through the appearance and disappearance of figures. A relationship explored within a painted surface becomes a sequence encountered in the city.

하나은행이 주최한 디지털미디어아트페스타 2026에서 Emergence는 캔버스를 떠나 서울 명동 하나금융그룹 건물의 LED 파사드에 펼쳐졌습니다. 베이커의 회화를 바탕으로 제작된 영상은 인물이 나타나고 사라지는 과정을 따라 전개됩니다. 회화의 표면에서 탐구하던 관계가 도시에서 경험하는 시간의 흐름으로 이어집니다.



Photograph: Irina / 사진: Irina

# Daniel Baker

다니엘 베이커

I grew up as a pastor’s son in a conservative Christian community in the American South. As a child, I loved drawing, painting and decorating the Christmas tree. Being called “artistic” gave me room to be myself. When I realized I was gay, I began to worry that the word might give away what I was trying to hide. I gradually made less art.

Years later, as therapy helped me become more comfortable with myself, I wanted to make things again. I kept telling people it felt like becoming the younger version of myself. Today I paint at Park and Baker Studio in Seoul. Painting is my work, and I’m glad to have this part of myself back.

How I found my way back to painting →

저는 미국 남부의 보수적인 기독교 공동체에서 목사의 아들로 자랐습니다. 어릴 때는 그림을 그리고 크리스마스트리를 꾸미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예술적 기질이 있다’는 말 덕분에 조금 더 저답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제가 게이라는 것을 깨닫고 나서는, 그 말이 감추고 싶던 부분을 드러낼까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미술 작업을 덜 하게 됐습니다.

오랜 시간이 흐른 뒤, 심리 상담을 받으며 제 자신을 조금씩 편하게 받아들이게 되자 다시 무언가를 만들고 싶어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어릴 적의 제 모습을 되찾는 것 같다고 자주 말했습니다. 지금은 서울의 Park and Baker Studio에서 그림을 그립니다. 그림은 이제 제 일이 되었습니다. 그림을 그리던 제 모습을 되찾은 것도 기쁜 일입니다.

제가 다시 그림을 그리게 된 이야기 →

Private collections in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한국 및 미국 개인 소장

SELECTED PRIVATE COLLECTIONS / 주요 개인 소장

## Lee Hyun-sook
Founder and Chairperson, Kukje Gallery
이현숙 · 국제갤러리 설립자·회장

## Choi Hang Soon
Chairman, Duomo
최항순 · 두오모 회장

## H.E. Colin Crooks LVO
British Ambassador to the Republic of Korea
콜린 크룩스 · 주한 영국대사

## Eugene J.
Director, Eugene Gallery
정유진 · 유진갤러리 대표

# Selected CV

주요 이력

## Group exhibitions / 단체전

2026

### Samgak G7: The Place of Beginning

Yongsan Cultural Foundation, Seoul

삼각 G7: 시작의 자리 · 용산문화재단, 서울

2026

### Interwoven Horizons

H.ART1 / SIA NY Gallery, Seoul

H.ART1 / 시아 뉴욕 갤러리, 서울

2025

### Taste of Green

DDP Igansumun Exhibition Hall, Seoul

테이스트 오브 그린 · DDP 이간수문전시장, 서울

2025

### Sustainable Korean Fashion Art Show (SKFAS)

ClubOne, Hana Bank, Seoul

하나은행 클럽원, 서울

2025

### Repurposed

Carrollton Center for the Arts, Georgia, USA

캐럴턴 아트센터, 미국 조지아

## Art fair / 아트페어

2026

### 18th Pink Art Fair Seoul

JW Marriott Hotel Seoul

제18회 핑크아트페어 · JW 메리어트 호텔 서울

## Project / 프로젝트

2026

### Digital Media Art Festa

Invited artist

디지털미디어아트페스타 · 초청작가

## Education / 학력

2005

### BA, Studio Art & Philosophy

Berry College, Georgia, USA

스튜디오 아트·철학 학사
베리 칼리지, 미국 조지아

# Interviews & features

인터뷰 및 작가 특집

## Beauty Hankook

2025.11.19

Artist interview / 뷰티한국 · 작가 인터뷰

### “Inner sustainability, blossoming through emotional endurance, deeper than language.”

“언어보다 깊은 곳에서, 감정의 지속력으로 피워낸 내면의 지속가능성.”

박솔리 / Editor’s Say; English translation

Read the interview / 인터뷰 읽기 →

## Daily Art

2025.10.15

Artist feature / 데일리아트 · 작가 특집

### “There is a tactile sincerity in his surfaces and a psychological weight in his gestures.”

“그의 표면에는 촉각적 진솔함이, 몸짓에는 심리적 무게가 있다.”

홍선유 / Korean quotation translated

Read the feature / 특집 읽기 →

## Further reading

관련 보도

### STN News

2026.03.10

Pink Art Fair report with extended coverage of Baker.

다니엘 베이커의 작품을 비중 있게 다룬 핑크아트페어 기사

Read the article / 기사 읽기 →

### Handmaker

2026.07.29

DMAF 2026 · Nam June Paik tribute

핸드메이커 / 백남준 오마주 특별전 · 명동 상영

Read the article / 기사 읽기 →

### Yonhap News

2026.07.22

Samgak G7 · Yongsan Cultural Foundation

연합뉴스 / 용산문화재단 기획전 참여 보도

Read the article / 기사 읽기 →




# Park and Baker Studio

Daniel Baker / 다니엘 베이커

parknbaker.com

danbaker@parknbaker.com

@parknbaker

Seoul, South Korea · Studio visits by appointment
서울 · 스튜디오 방문은 사전 예약 바랍니다.

Korean enquiries / 한국어 문의 · Jin Park · +82 10 2111 9837